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탄력성, 소외감의 매개효과

박소연*, 유미숙**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부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데이터 중 결측치가 없는 1,8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과: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아탄력성, 소외감은 방임경험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 상담 및 부모상담에서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방임경험, 스마트폰 의존, 소외감, 자아탄력성,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I. 서론

2018년 초 중등학생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은 '유튜브 콘텐츠 시청'이었고, 장래 희망 1위는 크리에이터(1인 방송 제작자)로 15.3%였다(Lee, 2018). 실제로 청소년은 이른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내며(Lee & Yang, 2018) 스마트폰을 통해 또래집단간의 유대를 강화한다(Song & Kim, 2012). 이에 청소년은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며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30.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관련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주의 집중력의 저하를 초래하였고(Cho & Hwang, 2018)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켰다(Park & Kim, 2018). 이처럼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에,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개입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가장 널리 연구된 변인 중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있다(Nam & Ha, 2018). 부모로부터 관심 및 애정을 받는 것은 안정애착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관심 및 애정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다른 변인에 의존하게 된다(Lee & Yeum, 2018).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낮아졌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스마트폰 의존 정도는 높아졌다(Nho & Kim, 2016). 그 중, 방임경험은 신체적, 지적, 도덕적, 영적 측면에

서 모든 잠재능력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육행동의 결여(Huh, 1999)를 경험한 것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 선행연구는 방임경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 의존 정도도 높음을 밝혔다(Kwon & Lee, 2006; Lee & Lee, 2012). 이와 같이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지만 방임경험과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달리 만드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달리 만드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방임경험이 정서적 문제를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Cha, 2006; Jung, Nho, Lee, Sung, & Song, 2014; Kim, Lee, & Han, 2017).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 청소년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래와 의사소통하는 중요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 정서적 문제들 중 관계 내에서의 정서 문제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하여 대인관계 불안, 또래애착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Chang, Song, & Cho, 2012; Oh & Jang, 2009; Yeum, 2017). 본 연구는 여러 또래 관계 특성 중 청소년이 또래관계에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중독성향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Park, 2018; Young, 1998)를 참고하여, 소외감을 매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소외감은 개인이 사회적 과정의 속한 관계 내에서 친밀감 형성을 하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심리적 경험이다(Seo, 2007). 관련 선행 연구는 청소년의 소외감은 또 다른 사회관계망인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Seo, Kim, Kim, Ebesutani, & Jo, 2015),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집단이 휴대폰 중독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Liu & Yu, 2011).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지만 관련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양육(Nam & Ha, 2018), 낮은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Kang, 2000), 낮은 가족의 지지는 청소년의 높은 소외감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Lee, 2001). 이와 같이, 방임경험에 따라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소외감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방임경험이 정서적 측면인 소외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개념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연구는 낮은 자아탄력성이 크고 작은 심리·정서적 문제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Lee, Yang, & Yoon, 2015).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나타내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Block & Block, 2006), 청소년기에는 여러 스트레스와 변화를 경험하기에 특히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은 낮은 자아탄력성은 자살충동(Park, Bak, Lee, Jang, & Cho, 2016), 학교 부적응(Johnson, Bromley, & McGeoch, 2005), 비행(Yoo & Lee, 2014) 등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부적절한 부모양육행동(Cho & Lee, 2007; Lee & Yum, 2015), 부부갈등(Jang & Shin, 2006) 등의 스트레스 상황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지만, 유사한 개념을 지닌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은 사회적 철회 등의 내재화 문제를 보였고(Huey & Weisz, 1997), 또래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Chae & Song, 2004; Kim, Kwon, & Sim, 2005; Park & Yoo, 2007). 의존 관련 연구에서도 낮은 자아탄력성은 휴대폰 의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 Kweon, 2018; Song & Kim, 2012).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 내적 요인, 정서 요인, 가족 요인과 스마트폰 의존간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각 요인들과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향

력의 경로와 영향력의 크기를 총괄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모형을 통해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더하여 그 경로에서 자아탄력성, 소외감 등의 매개변수들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다루는 구체적 개입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상담 및 청소년 상담에서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전략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방임경험, 자아탄력성, 소외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변수들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남학생 948명(52.5%), 여학생 857명(47.5%) 총 1,80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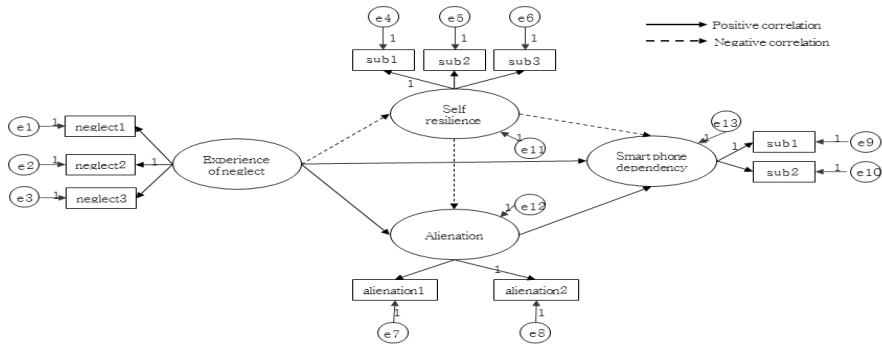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3. 측정도구

1) 방임경험

Huh(2000)가 개발한 부모양육척도(Parenting Behavior Inventory)와 Kim(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학대 척도(Child Abuse Scale) 중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Korea Policy Institute, 2016). 이 척도는 총 4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72로 나타났으나, 첫 번째 문항을 삭제할 경우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문항을 삭제한 후 신뢰도를 재검증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계수는 .76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를 Yoo와 Shim(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15)의 연구에서 활용한 것과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세 가지 요인을 산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변수들끼리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한 다음 각 평균을 측정변

수로 활용하였다.

3) 소외감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소외감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중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 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소외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73으로 나타났으나, 첫 번째 문항을 삭제할 경우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문항을 삭제한 후 신뢰도를 재검증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계수는 .77으로 나타났다.

4) 스마트폰 의존

이시형, 김학수와 나은영(2002)이 개발한 휴대폰 의존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바탕으로 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 따라 두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끼리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한 후 각 평균을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방임경험, 자아탄력성, 소외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 변수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근거한 분석절차는 측정모형을 분석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즉 측정모형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탐색하고,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수준을 확인하였고,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탐색하고, 변수 간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변수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방임경험의 측정변수는 방임1 1.87(\pm .71), 방임2 1.70(\pm .62), 방임3 1.60(\pm .60)으로 나타났다. 소외감의 측정변수는 소외1 1.84(\pm .80), 소외2 1.89(\pm .75)으로 나타났다. 항목 묶기를 통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74(\pm .55), 2.83(\pm .53), 3.09(\pm .42)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스마트폰 의존의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09(\pm .70), 2.77(\pm .70)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전제조건인 자료의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 첨도는 <4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한데(김주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본 연구의 경우 왜도는 -.380~.656, 첨도 -.320~.536의 범위를 갖고 있어 분석에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근거한 분석절차는 측정모형을 분석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우선 1단계인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임경험, 자아탄력성, 소외감, 스마트폰 의존이 다중지표를 사용하는 잠재변수며, 그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240.207$ ($df=29$, $p<.001$), CFI=.959, TLI=.936, AGFI=.947, RMSEA=.064으로 나타났고,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001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집중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값을 산출하였다(Table 1). 우종필(2016)에 따르면 AVE값이 .5 이상이고, C.R값이 .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AVE값은 .72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R 값은 .84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하는 집중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별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잠재변수의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지 살펴본 결과, 판별 타당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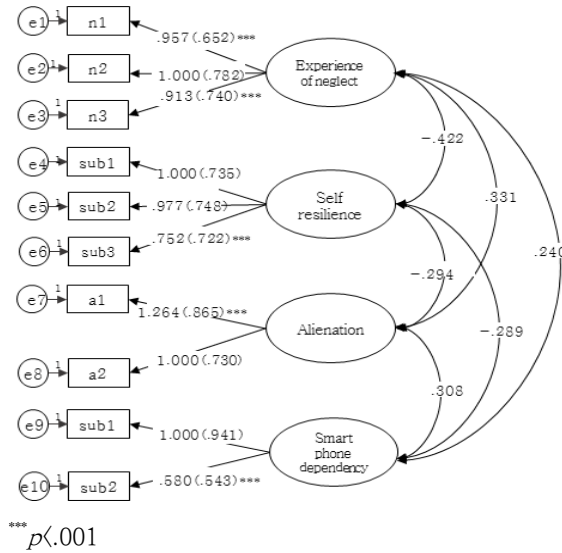


Figur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우종필, 2016).

법칙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잠재변수 간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잠재변수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법칙 타당도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우종필, 2016). 즉, 방임경험과 스마트폰 의존, 방임경험과 소외감, 소외감과 스마트폰 의존은 정적 관계로, 방임경험과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소외감,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의존은 부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3. 구조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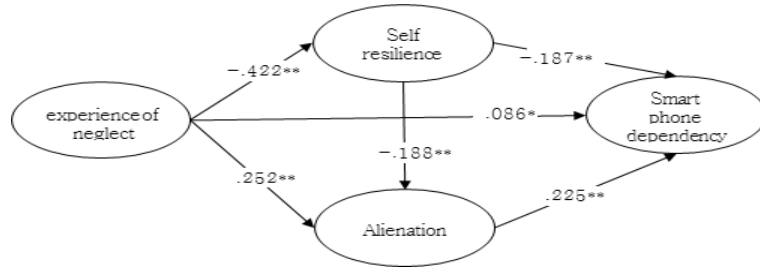
구조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240.207$ ($df=29$, $p<.001$), CFI=.959, TLI=.936, AGFI=.947, RMSEA=.064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3).

각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임경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422)이 낮고, 소외감(.252)과 스마트폰 의존(.086)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외감(-.188)과 스마트폰 의존(-.187)이 낮으며, 소외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225)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AVE, C.R & Correlation of Latent Variables

	1	2	3	4	AVE	C.R.
1. Neglect	1				.729	.889
2. Self Resilience	-.422 **	1			.823	.933
3. Alienation	.331 **	-.294 **	1		.750	.857
4. Dependency	.240 **	-.289 **	.308 **	1	.746	.846

** $p<.001$



* $p < .05$, ** $p < .01$

Figure 3. Path Model

이와 같이,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소외감 등 심리, 정서적 요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소외감이 달라지고, 소외감은 다시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직접·간접·총 효과와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효과를 분해한 결과, 모든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접효과와 총효과, 방임경험에서 소외감(.079)의 경로, 방임경험에서 스마트폰 의존(.153)의 경로, 자아탄력성에서 스마트폰 의존(-.042)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효과와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임경험에서 소외감(.332)의 경로, 방임경험에서 스마트폰 의존(.240)의 경로, 자아탄력성에서 스마트폰 의존(.231)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방임경험은 소외감,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Table 2. Path Estimate of Observed Model

Path of Latent Variable		B	β	S.E	t
Experience of Neglect	→ Resilience	-.377	-.422	.029	-13.207***
	→ Alienation	.312	.252	.044	7.106***
	→ Dependency	.074	.086	.029	2.597**
Self Resilience	→ Alienation	-.260	-.188	.047	-5.476***
	→ Dependency	-.179	-.187	.035	-5.054***
Alienation	→ Dependency	.156	.225	.026	6.022***

** $p < .01$, *** $p < .001$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Path of Latent Variable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Neglect	→ Alienation	.252**	.079**	.331**
	→ Dependency	.086**	.153**	.240**
Resilience	→ Dependency	-.187**	-.042**	-.229**

** $p < .01$

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 역시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외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방임경험이 자아탄력성, 소외감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한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에 부모의 방임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ee & Lee, 2012; Yeum, 2017), 방임경험이 휴대폰 중독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Jung et al., 2014)와 일치한다. Lee와 Yeum(2018)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종단연구에서는 방임경험이 스마트폰 의존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청소년 집단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돌봄을 받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관계가 단절되면, 이와 관련된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부모의 적절한 돌봄의 부재로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존을 경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육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훈육 방법과 대화 기술은 모를 수 있다. 이에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발달에 대한 교육과 연령에 맞는 적절한 양육 방법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자녀를 방임하는 부모의 경우, 부모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Choi & Yoo, 2018).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주기적으로 정서 행동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평가나 정신건강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상담 시 필요할 경우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발달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을 증가시키는 경로로 이어진다. 이는 방임경험으로 인해 스마트폰 의존이 될 수 있다는 연구(Lee & Yeum, 2018)와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다는 연구(Kim, 2017; Moon & Kweon, 2018)와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 상담 시 방임과 자아탄력성에 대해 모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스마트폰 의존을 경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고취시키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Kim & Suh, 2016), 상담 장면에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 여러 구체적인 기법들을 훈련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해야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발달을 도울 것이며,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것이다.

셋째, 방임경험은 자아탄력성 및 소외감을 복수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ang, 2000; Nam & Ha, 2018)와 맥을 같이 하며,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휴대폰 의존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Nam & Ha, 2018; Park, 2018)를 뒷받침한다. 자아탄력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또래와 긍정적 관계

를 형성한다는 결과(Herman-Stahl & Petersen, 1996)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임경험이 소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방임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소외감을 더 부각시키며, 그 결과 청소년은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소외감을 살피고 원만한 또래관계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상담 시 청소년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도 인지하여야 하며, 질적으로 안정된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더하여 친구 사이에 다양한 갈등을 안전하게 경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는 프로그램을 하며 소외감을 낮추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집단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지지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들은 청소년이 자기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된 것으로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부모나 교사, 상담자의 인식과는 다르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대상자를 스마트폰 의존에 관한 보고서로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성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스마트폰의 관계적, 감성적 특징으로 인해 여자청소년이 더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경로의 변화나 영향력의 차이는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놀이이자 소통을 하는 긍정적 매체일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인 의존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청소년의 놀이, 소통, 문화 등 다양한 경험과 체험에 대해 보다 다각도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한 시점의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횡단연구로, 본 연구에서 탐색한 변인들은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스마트폰 의존은 다시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여러 변인들의 상호적인 영향을 보다 자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방임경험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라는 개인특성과, 소외감이라는 관계 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스마트폰 의존의 감소를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상담 개입방법을 제안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SPSS 23.0과 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탄력성, 소외감은 방임경험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상담 및 부모상담에서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 시점의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횡단연구로, 탐색한 변인들은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여러 변인들의 상호적인 영향을 보다 자세히 규명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쓰기*. 서울, 한국: 커뮤니케이션 북스(주)
-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우중필. (2016). *우중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국: 한나래 아카데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lock, J., & Block, J. H. (2006).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315-327.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ha, M. S. (2006). *Moderating variables on the effect of loneliness on danger of the mobile phone addiction to adolescen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Chae, S. G., & Song, Y. H. (2004). The characteristics of a child who has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8*(2), 1-13.
- Chang, S. J., Song, S. W., & Cho, M. N. (2012). The effects of perceive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mobile 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attachment to pe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161-187.
- Cho, E. S., & Hwang, I. O.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mart phone dependence and atten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6), 131-143.
- Cho, G. Y., & Lee, E. H. (2007).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Mediation link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family strength, and behavior problems. *Studies on Korean Youth, 18*(1), 79-106.
- Choi, S. B., & Yoo, M. S. (2018). The effect of exposure to neglect and abuse on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depression and aggression. *Sook-Myung Journal of Child Study, 3*(1), 63-82.
- Han, H. J. (2009).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mobile phone overuse by adolescents' stressors and ego-resilien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Herman-stahl, M., & Petersen, A. C.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6), 733-753.
- Huh, M. Y.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s perceived by adolescent* (Docto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Hury, S. J., & Weisz, J. R. (1997).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04-415.
- Jang, J. A., & Shin, H. C. (2006).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s maladaptation: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3), 256-592.
- Johnson, J. G., Bromley, E., & McGeoch, F. G. (2005). Role of childhood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of maladaptive and adaptive personality trait(pp. 209-221). In Oldham, J. M., Skodol, A. E., & Bender, D. S. (Eds.), *The American Psychiatric Press Textbook of Personality Disorder*, V.A: American Psychiatric.
- Jung, P. H., Nho, C. R., Lee, K. S., Sung, M. H., & Song, J. D. (2014).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cell phone addiction-gender comparis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7*, 93-123.
- Kang, W.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father's/ mother's values, father/mother-student emotional intimacy & father's/ mother's over control and*

- university student's alienation*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E. J. (2017). Factors influencing the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177-183.
- Kim, H. J., & Suh, K. H. (2016). Roles of ego-resilience in life stresses and attitudes toward lif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297-316.
- Kim, K. H., Kwon, S. J., & Sim, M. Y. (2005). Test stress and the physical sympto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1), 113-126.
- Kim, O. H., Lee, K. J., & Han, Y. H.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rauma and smart phone addiction tendency: Mediator effect of negative affect and regulation effect of self elastic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3), 95-114.
- Kim, S. W.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orea Policy Institute (2016).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Seoul, South Korea: Korea Policy Institute.
- Kweon, O. H., & Moon, J. W. (2018).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mobile phone dependency-A convergent approach to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gender-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45-152.
- Kwon, J. H., & Lee, E. H. (2006). The effect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17(1), 325-351.
- Lee, A. R., & Lee, K. Y. (2012). The effects of parental factors, friend's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addictive mobile phone use of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2), 27-39.
- Lee, C. K., Yang, H. L., & Yoon, Y. J. (2015). The pathways from family structure and economic status to adolescent delinquency-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emotional statu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3(4), 23-35.
- Lee, D. Y., & Yum, S. C. (2015).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and aggress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3(2), 277-298.
- Lee, E.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lienation and social support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10(4), 496-507.
- Lee, H. N., & Yang, S. M. (2018). Differential effects of parenting styles, psychological traits, and purpose of smartphone use upon Korea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5), 175-214.
- Lee, K. E., & Yeum, D. M. (2018). The latent class analysis for adolescent's dependence on smartphone: Mediation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in the influence of neglect to adolescent's dependence on smartphon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4), 383-394.
- Lee, Y. B. (2018, Oct 17). No.1 hope for the futur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s 'creator'. *The financial news*. Retrieved December 30, 2018, from <http://www.fnnews.com/news/201810171131550542>
- Liu, H., & Yu, H.L. (2011). The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mobile phone addiction and mobile phone motive, loneliness. *Psychological Sciences*, 34(6), 1453-1457.
- Nam, H. J., & Ha, E. H. (2018). Associations among changes in mobile phone dependency over time, parenting attitudes, and alienation in adolescence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15(3), 75-91.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Sinal report of smartphone and dependency survey. Daegu: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Nho, C. R., & Kim, S. Y. (2016).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depression and aggression. *Studies on Korean Youth*, 27(4), 87-114.
- Oh, E. J., & Jang, S. H. (2009).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ego-identity,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1(3), 24-44.
- Park, B. S. (2018). The influence of peer alienation on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adolescents: Focus

-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2), 1-27.
- Park, J. H., & Yoo, S. H. (2007).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on th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1), 379-394.
- Park, S. J., Bak, E. Y., Lee, S. I., Jang, A. H., & Cho, S. W. (2016). Effects of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on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3), 310-319.
- Park, S. Y., & Kim, J. I. (2018). The analysis on the mediating/moder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yber bully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s*, 18(22), 1207-1230.
- Seo, H. J.(2007). *An ethnography study on the alienation phenomenon of 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Kyungin university, Seoul
- Seo, W. J., Kim, M. R. H., Kim, J. H., Ebesutani, C., & Jo, I. S.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ocial media addiction.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4), 497-512.
- Song, M. R., & Kim, S. Y. (2012). The relationship among peer attachment, ego-resilienc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in middle schools students. *Forums For Youth Culture*, 32(1), 65-89.
- Yeum, D. M. (2017). Latent profile analysis on smart phone depend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11(2), 107-114.
- Yoo, J. S., & Lee, C. W. (2014).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ego resilience on the delinquent tendencies of prim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32, 83-109
- Yoo, S. K., & Shim, H. 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 Young, K. S. (1998). *Caught inter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Wiley.

Abstract

Pathways From the Experiences of Neglect to Adolescent Smart 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Resilience and Alienation

Park, So Youn^{*}, M. S., C. W., Yoo, Mee Sook^{**}, Ph.D, C. W.

^{*}Dept. of Child Welfare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xperiences of neglect on adolescent smart phone dependency, exploring the pathways through self-resilience and alienation.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7th wave data from the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KCYPS), and the sample included 1,805 participants with no missing data.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programs.

Results: First, the experiences of neglect directly affected adolescent smart phone dependency. Second, the experiences of neglect indirectly affect smart phone dependency partially mediated by self resilience and alienation.

Conclusions: The ways to prevent adolescent smart phone dependency were discussed.

Key Words: Alienation, KCYPS, Neglect, Self resilience, Smart phone dependency